

“내년 전남 농수산물 수출 10억 달러 달성”

도, 수출 주역들과 전진대회…수출탑 수여 10월까지 7억3000만 달러…역대 최고 실적

전남도는 최근 남악 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농수산물 수출기업, 수출 유관기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농수산물 수출기업 전진대회’를 열어 내년 수출 10억 달러 달성 결의를 다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남 농수산물 수출

확대에 기여한 수출기업과 유관기관을 격려하고 2025년 농수산물 수출 확대 전략을 공유했다.

전진대회는 2026년 농수산물 수출 10억 달러 달성 목표 퍼포먼스, 전남 식품산업현황과 수출전략 발표, 우수 사

군 사례 발표(장흥군), 글로벌 B2B플랫폼 트리트지의 수출 전문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농수산물 수출 우·수 시군에는 9곳이 선정됐다. 대상에 장흥군, 최우수상에 나주시와 해남군, 신안군, 우수상에 목포시, 순천시, 여주시, 고흥군, 완도군이 도지사 기관표창과 포상금을 받았다.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를 포함한 수출 유관기관 3개소와 수출 확대에 공로가 큰 수출 유공자 8명도 도지사 표창을 받

았다.

특히 수출성도가 우수한 기업을 격려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전남 농림축수산물 수출탑에는 1000만 불 ㈜엘리프드, 700만 불 ㈜라벨리·㈜에원, 600만 불 ㈜스마일프레쉬, 500만 불 ㈜바다명가, 100만 불 오성수산·해미원·㈜세화제이엔제이식품·㈜네시피에프앤비, 90만 불 영농조합법인 광수, 70만 불 ㈜리턴쥬라이, 50만 불 ㈜미가원·㈜푸른정식품, 40만 불 강진군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 30만 불 영농조합법인 꽃거름·석곡농업협동조합·가나중묘㈜, 20만 불 완도바다 영어법인, 10만 불 ㈜현대푸드시스템이 각각 수상 영예를 안았다.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전남 농수산물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잇따라 갱신하는 것은 수출기업·유관기관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해외 소비자가 전남 제품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수한 재료와 믿을 수 있는 품질 덕분

이다. 이 강점을 기반으로 전남 농수산식품이 글로벌시장에서 더욱 자리잡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 농수산물 수출액은 올 들어 10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 늘어난 7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1년 10월 말 4억4700만 달러, 2022년 4억6600만 달러, 2023년 5억2600만 달러, 2024년 6억4100만 달러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서구 장애인 어울림 복지축제 28일 오후 광주 서구 품앗이 장애인체육센터에서 열린 제20회 서구 장애인 어울림 복지축제에 참석한 김기창 서구청장과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축제는 유공자 표창, 감사패 전달과 축하공연, 노래자랑 등 어울림 한마당이 펼쳐졌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시, ‘농업법인 조사모델’ 대통령상

적극행정 경진대회 ‘전국 1위’…농업법인 투기 근절 성과

광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구현한 ‘농업법인 조사모델’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지방 재정 확충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며 정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대통령상을 수여했다. 광주시는 이번 대회에 ‘지방세 자료 연계를 통한 농업법인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지방 재정 확충 성과’를 적극행정 사례로 제출했다.

이 사례는 올해 상반기 광주시 적극행

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 광주시를 대표해 경진대회에 참가했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 과세자료와 농업법인 관리정보, 법인 재무제표, 농지직불금 내역, 토지대장, 항공사진 등 다양한 행정데이터를 연계·분석하는 조사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983개 농업법인을 전수 조사해 106억 원의 세원을 발굴·추진했으며, 부동산업을 영위한 74개 법인에는 해산명령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기초자료가 부족해 관리가 어려웠던 농업법인 분야에서 자치구 세원 전문가와 협업을 새로운 분석기법을 개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능동·협업 기반 AI 시대형 교육 체계 전환해야”

광주시의회 시특위 간담회…콘텐츠산업 활용 등 논의 중장기 교육 로드맵·스타트업 지원 등 현장 요구 불물

광주시의회 ‘인공지능(AI) 실증도시 특별위원회’가 6회에 걸친 AI기업 조찬간담회를 통해 지역 기업의 고충을 수렴하면서 데이터 인프라 조성과 제도 개선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했다.

30일 시의회 AI특위에 따르면 지난 28일 제6회 조찬간담회를 끝으로 11월 한 달 간 지역 AI기업과 기관 등의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AI특위는 각 회차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분야별로 정리해 12월 중 추가 간담회·현장 방문·정책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정책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간담회에는 AI 기업 및 기관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AI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지역 콘텐츠 산업의 활용 전략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철현 이스트소프트 전락실장은 “산업시대의 수동적 교육을 넘어 능동·협업 기반의 AI 시대형 교육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기의 뇌 가소성을 활용해 문제 설계·코딩·데이터 분석까지 직접 수행하는 R&E(Research & Education) 모델을 제안했다.

김 실장은 “광주를 AI·NPU 실증 테스트베드로 삼아 초기 실증·온디바이스 AI·NPU 기반 실증을 결합하면 창발적 혁신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과학고와 함께 추진한 AI 스마트체육 키오스크 실증(R&E 프로젝트)도 사례로 소개하며,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과학고 중심의 AI 교육을 지역 전체로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 발제자인 김용혁 페르소나AI 광주본부장은 콘텐츠 산업 전주기에 AI 기술이 도입되는 흐름을 설명했다.

그는 “기획·제작·유통·후반작업까지 AI가 생산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며 “광주 콘텐츠 기반시설(GCC 광주실감콘텐츠클러스터 등)을 활용하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빠르게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지역 문화자산(5·18 기록물, 지역 방

언, 관광지 영상 등)을 활용한 AI 기반 교육·체험 콘텐츠 개발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윤리·편향·저작권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지훈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디지털혁신본부장은 “초·중등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이 내년도 시비 미확보로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며 “AI 핵심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기초 SW 역량 강화, 실전형·수익 기반 교육 모델, 산학 매칭 체계, 창업·재무 컨설팅 지원, 콘텐츠 산업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AI 기술 도입과 함께 저작권·윤리 리스크를 교과 단계부터 다루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수훈 위원장은 “AI 시대의 교육은 기술 중심이 아니라 문제 해결·창의성·실전 경험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기 기자 sky@

임지락 전남도의원 출판기념회 ‘성황’

정세균·김동연 등 축하메시지

임지락 전남도원의 저서 ‘Reader & Leader’ 출판기념회가 29일 오후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지역 주민과 전남·광주 인사 등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행사에서는 임 의원의 정치적 스승으로 알려진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정치에 필요한 능력·전문성·도덕성을 모두 갖춘 인물”이라고 격려사를 전했다.

신정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은 “국민 주권정변 시대, ‘정치는 국민을 위해 쓰임 받는 도구’라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정치인으로 화순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구충곤 전 화순군수이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 생사교락을 함께한 사람”이라며 임 의원의 향후 발전을 응원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 황명성·양부남·김원·민형배·정진욱·문금주 국회의



정세균 전 국무총리(오른쪽)가 임지락 전남도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격려했다.

원 등이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권향열 국회의원은 축전을 전달했다.

임지락 의원은 “군민을 돕고 지켜드린 줄 알았지만, 되돌아보면 여러분이 저를 잡아주고 키워주셨다”며 “여러분이 힘들 때 제 등을 내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임지락 도의원은 화순군 정책보좌관과 화순군의원(제5·6대)을 역임하고, 현재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민주당 화순지역위원회 상근부위원장, 전남대 총동창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광주, 겨울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 변신

대형트리 점등식·퍼레이드 등 크리스마스 분위기 확산

광주시는 12월 한 달 동안 도심 곳곳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겨울축제와 공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주의 중심인 5·18민주광장에서는 ‘빛고을성탄문화축제’가 열려 대형트리와 다양한 조명 설치로 광장이 화려하게 변신한다. 30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캐롤 버스킹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이어나간다.

충장로우체국 앞에서는 연말까지 ‘충장 윈터판타지’가 운영돼 크리스마스마켓, 포토존 등 연말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남구 양림동 일대에서는 근대문화유

산과 골목길에 어우러진 공간을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낸 ‘양림&크리스마스문화축제’가 열린다. 1일 트리 점등식과 24~25일 거리 퍼레이드, 성탄 콘서트 등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행사를 선보인다.

도심 곳곳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포토존이 조성된다.

광주송정역 광장은 ‘12월 가장 예쁜 역’을 주제로 ‘산타마을’이 조성돼 내년 1월 13일까지 운영된다. 남구 푸른길공원 청로정 일원, 운천저수지 바닷분수대 광장, 광주신세계백화점 등에서 빛의 도시 광주의 겨울 야경을 만날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국립광주과학관에서도 크리스마스를 맞아 특별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다양한 겨울 콘텐트를 선보인다.

오는 31일에는 5·18민주광장에서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열린다.

광주패밀리랜드 눈썰매장은 이달 중

순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길게 조성된 슬로프를 내려오며 즐기는 눈썰매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특별한 겨울 추억을 선사한다.

염주종합체육관 내 광주실내빙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

광산구 이웃갈등 조정활동가 ‘눈에 띄네’

충간소음·누수 등 275건 상담·조정…사후관리도

광주 광산구 주민들의 일상 속 생활 갈등을 조정하는 ‘이웃갈등 조정활동가’의 현장 지원이 호응을 얻고 있다.

30일 광산구에 따르면 2022년부터 이웃갈등 조정활동가를 양성해 이웃 간 분쟁을 상담·조정·사후관리하는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4명의 조정활동가가 지역 곳곳의 갈등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웃갈등 조정활동가 사업은 주민이 스스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광산구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062-959-8526)와 협업을 통해 갈등 상담, 1·2차 예비조정, 본 조정,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운영한다.

신청인이 민원을 접수하면 2인 1조로 당사자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화해를 위한 합의점을 찾는다. 조정이 성립되면 활동가는 합의 이행 여부까지 점검해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총 275건의 갈등 민원이 접수됐으며 조정 회의는 317회 진행됐다. 조정 과정에서 조정활동가가 나서 해결하거나 당사자들끼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등 163건의 갈등 민원을 해결했다. 갈등 유형은 충간소음이 195건(71%)으로 가장 많았고, 누수 42건(15%), 반려동물 9건(3%), 흡연 13건(5%)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이 주를 이뤘다.

임정호 기자 ljh4415@